

코로나 기간 국내 가계부채 및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동향 분석(한국)

장 동 훈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1. 서언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로 약칭합니다)”가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세계경제 상황 내지 동향을 살피고, 코로나가 한국에 미친 영향 중 특히, 코로나와 국내 가계부채 및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 기간 동안의 세계경제 상황

가. 코로나 발생 및 전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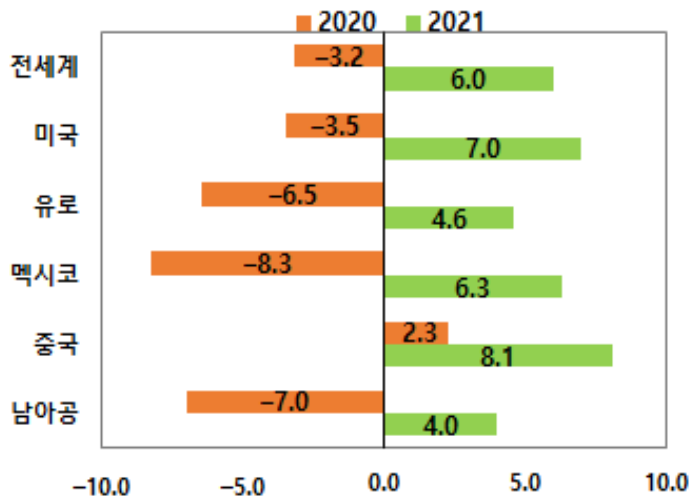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로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대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¹⁾는 팬데믹이 선언된 후인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동년 3월 말까지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매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월 28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범유행전염병(팬데믹)임을 선언하였다.

2020년 10월 6일, WHO는 무증상 감염자 같은 곳곳에 숨은 전파자를 고려하여 실제 통계치보다 20배 이상 많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약 7억 6,000만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상 '위키백과' 참조).

나. 코로나 기간 동안의 세계경제

IMF는, 2020년과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자료:IMF 참조, 한국금융연구원(신용상 선임연구위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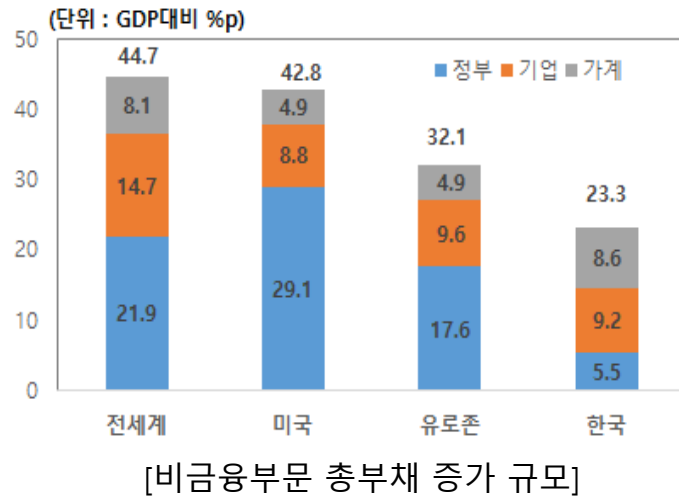
2020년 세계경제는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침체하였다는 점을 좌측 IMF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공동대응을 통해 통상 10년이 걸릴 수 있는 백신 적용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코로나가 시작된 지역 1년 후인 2020년 말에 백신보급이 시작되어, IMF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는 약 6% 성장하여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 경제성장률은 각국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공격성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세계 경제성장률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 통화정책으로 인해 시장에는 유동성이 확대되었고, 자산가격 역시 급등한 상황입니다.

다.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세계 각국의 비금융 정부·기업·가계부채 추이

아래 표는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각국의 비금융부분 총부채 증가 규모입니다[자료:BIS 참조, 한국금융연구원(신용상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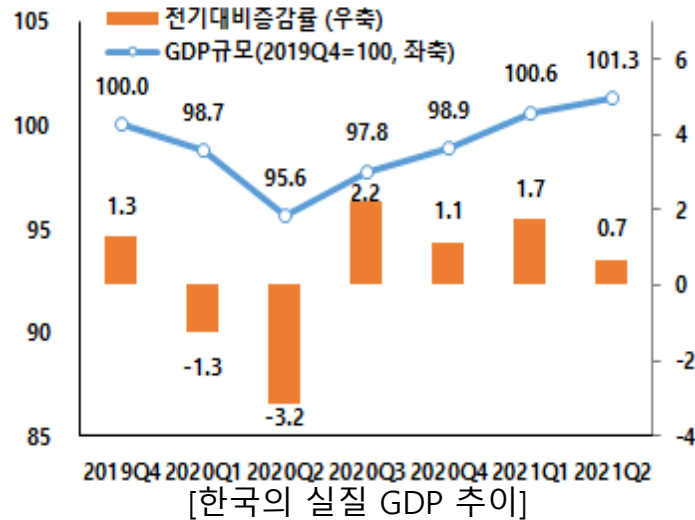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는 GDP대비 전세계 14.7%p, 미국 8.8%p, 유로존 9.6%p가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9.2%p가 증가하였습니다.

한 해만에 전세계 총부채(비금융부분 정부·기업·가계부채)가 44.7%p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통화정책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3. 한국의 경제상황 및 가계부채 추이

가. 한국의 실질 GDP 추이 및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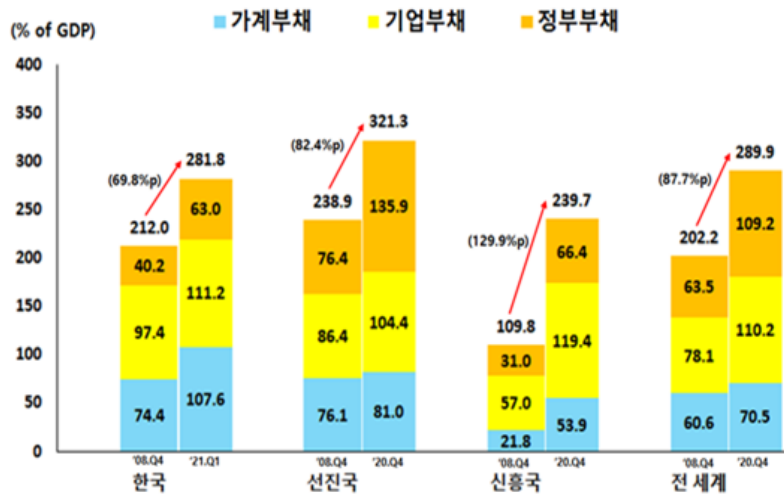
아래 한국은행 자료에서 한국의 실질 GDP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한국은행 참조,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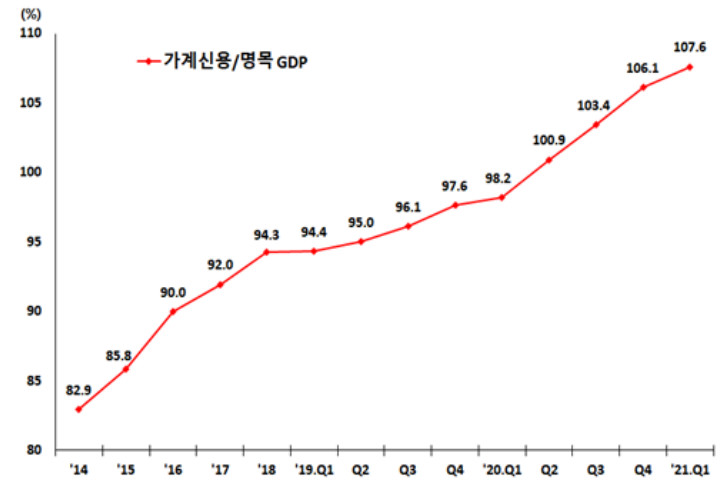
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2020년 1분기에서 2분기 동안 감소하다가, 2020년 3분기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부터는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4분기 실질 GDP보다 높아져, 한국경제는 2022년에는 정상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한국 가계부채 추이

주요 국가별 명목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을 비교한 표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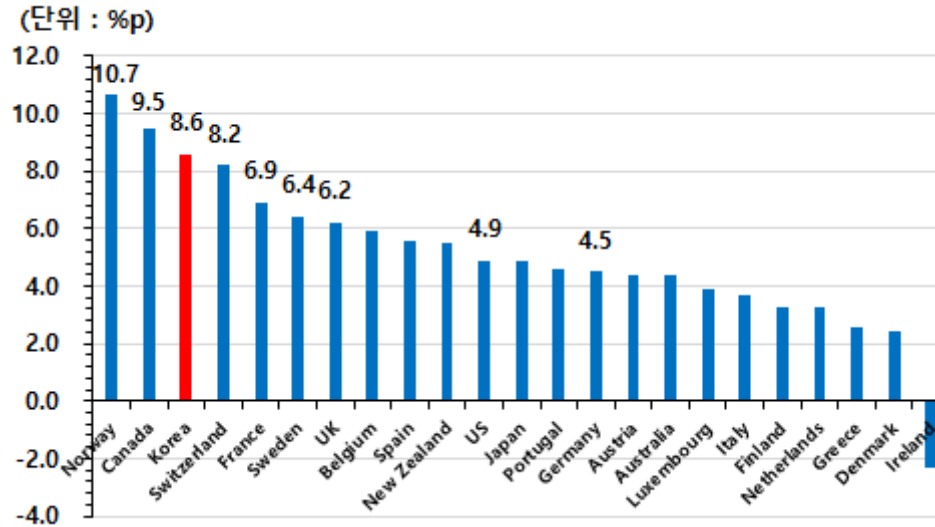
[주요 국가 명목 GDP 대비 총부채 비중 비교]
 자료: BIS 비교 기준,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 = 가계부채 + 비영리단체 부채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 가계부채 + 비영리단체 부채

한국의 2021년 1분기 명목 GDP 대비 총부채(정부부채 + 민간부채)는 281.8%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합니다(선진국은 321.3%, 신흥국은 239.7%, 전 세계 평균은 289.9%).

그러나 2021년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107.6%로 선진국(81.0%), 신흥국(53.9%), 전 세계 평균(70.5%)에 비해 상당히 높고, 증가속도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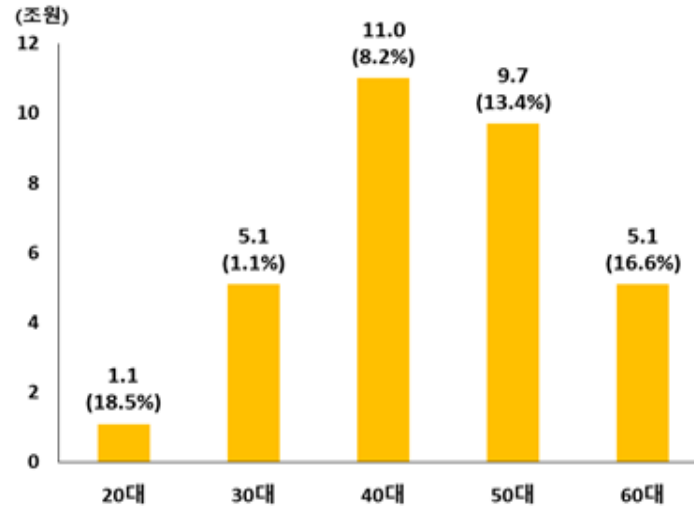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상승폭 국제비교(2020년 말 기준, 전년말 대비)]
 자료: BIS 참조,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약 1,80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2020년 말 선진국 20개국 중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상승폭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상황이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연령대별 부채 비교 - 카드론

한국의 연령대별 카드론 증가액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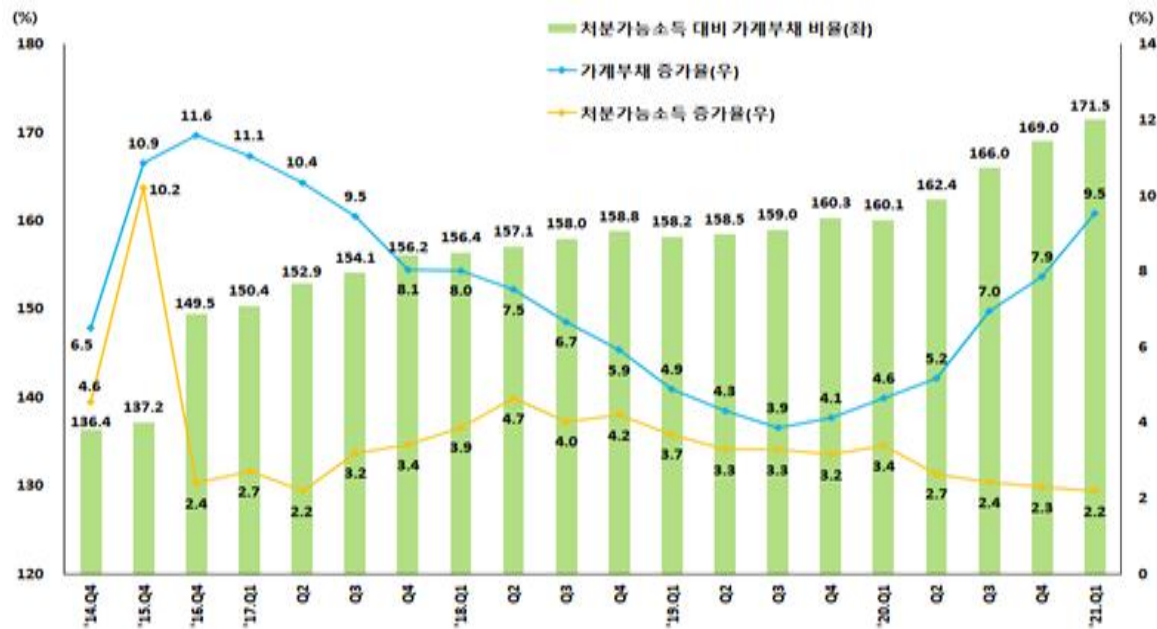


[연령대별 카드론 증가액 비교 - 자료: 금융감독원, 8개 전업카드사 기준]
()안은 19년말 대비 20년말 증가율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부채를 대체하는 카드론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대 이하의 부채 상환 이슈는 장차 문제가 될 여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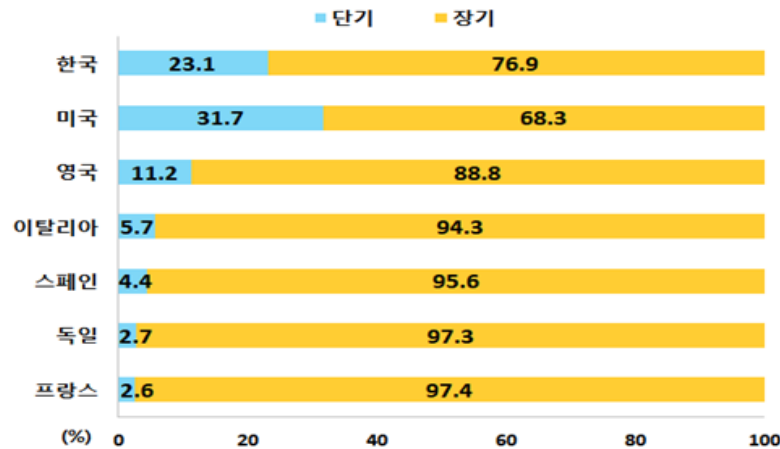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채무 부담으로 인해 개인의 부도율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 자료:한국은행 참조, 한국금융연구원]

위 표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비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감소하여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1년 미만의 단기부채 비중이 높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 가계부채 장·단기 구성비 - 자료:OECD통계, 한국금융연구원, 2020년말 기준]

4. 한국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추이

가. 한국 가계부채의 경향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반적인 부채의 질(저소득, 저신용대출, 비은행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 취약업종차주 대출에 대한 고금리대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원리금상환 유예조치 종결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현재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은 “아직까지 가계부채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표상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분	'18말	'19말	'20.1Q	'20.2Q	'20.3Q	'20.4Q	'21.1Q
총금융권	0.69	0.69	0.75	0.70	0.65	0.55	0.54
은행권	0.26	0.26	0.27	0.25	0.22	0.20	0.18
제2금융권	1.56	1.64	1.83	1.75	1.64	1.37	1.39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자료:금융감독원]

이는 “초저금리 지속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부실의 현재화가 이연되고,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체율 산식의 분모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것이 결국 수치상 낮은 연체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체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커진 특성을 감안하면, 장차 부실화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고, 조만간 이연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급격한 가계 도산이 도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한국의 개인회생·면책 현황 분석(이하 자료 : 법원행정처)

1)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수

개인회생 신청 연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수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월까지)
2017	81,592	68,539	42,019	25,931	568	19	2
2018	91,215	77,883		44,936	31,956	978	13
2019	92,587	79,470			48,031	30,847	592
2020	86,553	64,629				46,324	18,305
2021 (3월까지)	19,722	3,298					3,298

2017년 개인회생신청건수는 81,592건이고, 당해연도에 개시결정된 건수는 42,01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25,951건, 2019년에는 19건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회생신청한 당해연도 개시결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만 2020년에는 신청건수가 86,553건이었는데, 당해연도 개시결정건수는 46,324건으로 신청 당해연도에 개시결정한 비율이 이전 연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원 조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2) 각 연도별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인가 또는 기각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각 지방법원	개인회생신청연도별변제계획인가/기각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회생	8.33	7.37	6.67	5.87
의정부	8.95	8.99	9.16	7.91
인천	14.13	10.31	8.72	7.55
수원	11.46	9.98	9.59	6.81
춘천	8.78	8.25	9.67	7.34
춘천 강릉지원	10.62	11.27	10.11	9.02
대전	8.11	7.99	6.71	5.91
청주	9.88	10.68	10.65	9.59
대구	7.01	7.29	8.26	7.33
부산	12.83	12.87	14.63	10.65
울산	12.00	15.18	14.49	10.17
창원	9.15	7.45	7.61	8.03
광주	6.96	8.21	8.00	6.77
전주	11.21	9.30	8.03	6.76
제주	8.25	8.30	10.05	8.71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인가 또는 기각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17년 8.33년, 2018년 7.37년, 2019년 6.67년, 2020년 5.87년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전국 법원 역시 그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변제계획인가 전(회생개시결정 후 ~ 변제계획인가 결정 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건수

개인회생개시 연도	(변제계획인가 결정 전) 폐지 연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월까지)
2017	9,267	5,469	3,567	204	24	3
2018	9,702		6,221	3,358	112	11
2019	9,638			6,391	3,197	50
2020	8,236				6,253	1,983
2021 (3월까지)	608					608

개시연도가 2020년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변제계획인가 전(회생개시결정 후 ~ 변제계획인가 결정 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전체 건수는 8,236건인데, 그 중 2020년에 폐지된 건수는 6,253건으로, 2017년도 9,267건 중 2017년도에 폐지된 건이 5,469건, 2018년도 9,702건 중 2018년에 폐지된 건이 6,221건, 2019년도 9,638건 중 2019년에 폐지된 건이 6,391건인 것에 비해, 당해 연도에 폐지된 비율이 높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변제계획 자체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4)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변제계획인가가 폐지되는 건수와 그 주요시기

개인회생개시 연도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연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월까지)
2017	12,643	411	4,221	5,226	2,402	383
2018	9,063		396	3,906	4,083	678
2019	5,831			557	3,890	1,384
2020	1,019				404	615
2021 (3월까지)	515					515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변제계획인가가 폐지되는 건수는 2017년 12,643건, 2018년 9,063건, 2019년 5,831건, 2020년 1,019건, 2021년 3월 기준 515건으로 코로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생개시 당해 연도는 약 3~4% 내지 9% 정도 폐지된 추세를 보이고, 개인회생개시연도 2년 후까지 폐지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코로나 기간)의 경우 당해 연도부터 약 40% 정도 폐지된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5)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 현황 및 결정 현황

특별면책 여부결정연도	각 지방법원	특별면책신청에 따른 면책여부 결정		특별면책직권결정 건수
		면책허가 건수	면책불허가 건수	
2017	서울회생	1	0	17
	의정부	1	0	0
	인천	0	0	0
	수원	4	1	4
	춘천	0	0	0
	춘천 강릉지원	0	0	0
	대전	0	0	2
	청주	0	0	2
	대구	4	0	8
	부산	0	0	5
	울산	0	0	0
	창원	0	0	3
	광주	0	0	3
	전주	1	0	2
	제주	0	0	0
	합계	11	1	46
	2018	서울회생	2	1
의정부		2	0	5
인천		0	0	3
수원		3	0	5
춘천		1	0	1
춘천 강릉지원		0	0	0
대전		5	1	4
청주		0	0	1
대구		2	0	13
부산		3	0	3
울산		0	0	1
창원		1	0	4
광주		0	0	0
전주		0	0	0
제주		0	0	0
합계		19	2	56

2019	서울회생	19	3	17
	의정부	1	0	1
	인천	1	0	4
	수원	11	0	5
	춘천	3	0	4
	춘천 강릉지원	0	0	0
	대전	2	0	5
	청주	1	1	0
	대구	2	0	7
	부산	1	2	1
	울산	2	0	1
	창원	4	0	2
	광주	0	0	8
	전주	2	0	2
	제주	0	0	0
	합계	49	6	57
	2020 (코로나 기간)	서울회생	47	0
의정부		4	0	15
인천		0	0	13
수원		8	0	30
춘천		8	0	14
춘천 강릉지원		1	0	1
대전		5	1	14
청주		2	0	4
대구		7	0	15
부산		3	1	130
울산		4	0	6
창원		1	0	3
광주		1	0	5
전주		3	0	5
제주		0	0	0
합계		94	2	1,646

5)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 현황 및 결정 현황

2021 (3월까지)	서울회생	17	0	54
	의정부	0	1	2
	인천	2	0	1
	수원	13	0	1
	춘천	4	0	0
	춘천 강릉지원	0	0	0
	대전	1	1	1
	청주	1	0	1
	대구	3	0	3
	부산	2	0	17
	울산	1	0	0
	창원	0	0	1
	광주	0	0	0
	전주	1	0	2
	제주	0	0	0
합계	45	2	83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개인회생·면책 신청 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특별면책²⁾ 인용 건수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특별면책신청에 따라 인용된 건수 및 특별면책직권결정 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을 기준으로 2014년 11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고,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확대 개편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후에도 2017년 18건, 2018년 18건, 2019년 36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438건, 2021년 3월 기준 71건으로, 2020년부터 특별면책 결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전국 합계 역시 2017년 57건, 2018년 75건, 2019년 106건에 불과하다가, 2020년 1,740건, 2021년 3월 기준 128건으로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다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특별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면책 결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20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특별면책 활성화를 위한 준칙 개정'이 이루어진 면도 있을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이 인가된 채무자들도 코로나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개인파산·회생 신청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개인채무의 정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개인파산·면책 현황 분석

1)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건수

개인파산신청 연도	개인파산신청 건수	개인파산 선고 건수(괄호 안은 면책결정 건수)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월까지)
2017	44,244	41,696 (38,111)	27,674 (13,853)	13,785 (20,488)	227 (3,095)	10 (586)	0 (89)
2018	43,402	41,024 (36,427)		25,907 (12,240)	14,574 (20,265)	540 (3,621)	3 (301)
2019	45,641	42,987 (36,373)			23,985 (11,373)	18,611 (22,631)	391 (2,369)
2020	50,379	37,855 (20,752)				25,251 (11,185)	12,604 (9,567)
2021 (3월까지)	12,055	1,637 (38)					1,637 (38)

2017년 개인파산신청건수는 44,244건이고, 당해연도에 파산선고된 건수는 27,67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13,785건, 2019년에는 227건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파산신청한 당해연도 파산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만 2020년에는 신청건수가 50,379건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7년 개인파산 면책결정 건수는 13,853건, 2018년은 12,240건, 2019년은 11,373건, 2020년은 11,185건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인용 또는 기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각 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 연도별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회생	2.89	2.70	2.53	2.53
의정부	6.24	4.17	3.62	3.82
인천	4.38	5.45	7.49	6.11
수원	5.04	6.09	8.36	7.16
춘천	2.82	1.77	1.89	3.57
춘천 강릉지원	4.52	5.35	3.89	2.94
대전	3.22	4.33	6.30	7.62
청주	3.26	3.48	2.36	2.00
대구	6.87	5.91	8.60	7.49
부산	5.56	11.88	13.20	8.61
울산	3.36	5.85	6.31	5.50
창원	1.85	1.66	1.65	4.11
광주	3.29	2.69	2.16	2.29
전주	5.89	3.57	2.97	3.80
제주	3.53	3.59	4.83	5.65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인용 또는 기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17년 2.89년, 2018년 2.70년, 2019년 2.53년, 2020년 2.53년으로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없는 법원들도 확인됩니다.

3) 면책신청부터 면책선고 결정(인용 또는 기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각 지방법원	면책신청 연도별 면책결정/기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회생	8.58	7.98	7.01	5.61
의정부	13.35	10.94	9.84	7.89
인천	10.51	11.81	12.26	8.69
수원	11.86	11.68	12.12	9.37
춘천	8.20	7.17	5.95	7.00
춘천 강릉지원	11.84	14.37	9.99	7.11
대전	6.38	7.91	9.38	8.92
청주	7.42	7.75	6.10	4.74
대구	10.33	9.82	11.98	9.38
부산	9.19	15.31	15.31	8.05
울산	8.39	11.32	10.27	8.94
창원	4.46	4.63	4.52	5.98
광주	9.31	9.03	7.92	6.26
전주	9.86	7.62	6.45	5.82
제주	8.82	9.54	10.55	9.32

개인파산 면책신청 시점부터 면책선고 결정(인용 또는 기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17년 8.58년, 2018년 7.98년, 2019년 7.01년, 2020년 5.61년으로 감소 추세로, 전국 법원들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5. 결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개인회생·면책 신청 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 동안 그 직전 연도와 개인회생,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데, 한국금융연구원은 그 이유를, “초저금리 지속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부실의 현재화가 이연되고,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체율 산식의 분모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것이 결국 수치상 낮은 연체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규제할 경우, 장차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으며,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 잠시 이연된 부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결국 급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임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카드론 대출 증가폭이 급격하여 30대 이하의 부채 상환 이슈가 장차 문제가 될 여지가 높고 이는 청년층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되는 점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특별면책 활성화를 위한 준칙 개정'이 이루어진 면도 있을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 개인파산·회생의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계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흥행 중인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거나, 삶의 막다른 길에 몰린 참가자들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생존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장(서경환)은 "만약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이 회생법원을 이용했다면 안 올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게임을 안 하고도 재기할 수 있었다."며 회생·파산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2021. 10. 8.자 뉴스1 인터뷰 중).

하지만 회생, 파산 제도는 사후적인 방편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사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여 자칫 예견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 동 훈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코로나 기간 국내 가계부채 및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동향 분석(한국)